

장수산골영화제 16일 개막 학교로 찾아가는 북 콘서트 호응

19일까지 '마을에서 세계가 보인다' 슬로건으로 18개국 24편 국제 공식 선정작 상영

장수군은 천천면 구신마을 한 작은 산골마을에서 세계 영화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축제 '제4회 장수산골마을영화제(JMVFF)'가 열린다고 14일 밝혔다.

(사)장수산골마을영화제(대표 김소만)는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마을에서 세계가 보인다'를 슬로건으로 전 세계의 다양한 시선이 담긴 작품들을 선보이며 관객을 맞이한다.

이번 영화제에는 약 2개월간 173개국에서 총 2,184편의 작품이 접수돼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중 예비 심사를 거쳐 18개국 24편이 최종 상영작으로 선정돼 관객들은 산골 마을에서 세계 각국의 다채로운 영화들을 만나 볼 수 있다.

개막식은 16일 오후 7시, 장수군 천천면 구신마을의 특별한 공간인 '소마 영화관(리문지 소)'에서 열리며 아프리카 토고의 영화 '센트 두스(CENT DOUZE, 65분)'가 개막작으로 상영된다.

'센트 두스(CENT DOUZE)' 영화는



제4회 장수산골마을영화제(JMVFF) 포스터

112km 길이의 철도 종착역이었던 한 마을에 어느 날 기차 운행이 중단되면서 모든 것이 멈춰버린 '지역소멸과 공동체 회복'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 장수군 지역문화의 새로운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영화제는 기존 '섬발들산 골마을영화제'에서 '장수산골마을영화제'로 새롭게 이름이 바뀌었고 제4회 장수 청소년 영상제작 작품 4편 △ 순창어린이청소년영화제 출품작 2편 △ 청소년과 40년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1편 등 총 11편의 특별 상영작을 마련해 볼거리가 더욱 풍성하다.

/장수=고판호 기자



‘아침글방, 동동의 성독’ 성료

장수군,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사업 추진

장수군은 국가유산청의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사업으로 추진 중인 '다음 30년 장수향교와의 이를 시간'의 세부 프로그램인 '아침글방, 동동의 성독'을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고 세족식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침글방, 동동의 성독'은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국가유산 체험과 돌봄을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장수향교 대성전과 명륜당 등 유교문화의 중심지에서 진행됐다.

학생들은 등교 전 향교에 모여 전통

예절과 인문정신을 배우며 하루를 시작했으며, 단순한 학습을 넘어 지역의 아침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향교형 돌봄교실' 역할을 수행했다.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유교문화의 기본 정신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무분별한 디지털 문화 속에서 흐려진 인성과 공동체 의식을 되새기며 향교라는 전통 공간에서 우리 문화의 근간을 몸소 체득하는 유산 기반 인성교육의 장으로 의미를 더했다.

이번 행사는 향교가 단순한 문화유산이 아닌 가정과 학교, 지역을 연결하는 공동체의 거점으로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감사상담·기술감사 교육

무주군은 14일 무주군민의 집 대강당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관 초청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감사 상담 및 기술 감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 및 상담은 적극 행정을 지원하고 기술적 공무원들의 기술 분야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민원인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던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감사 상담"은

예절과 인문정신을 배우며 하루를 시작했으며, 단순한 학습을 넘어 지역의 아침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향교형 돌봄교실' 역할을 수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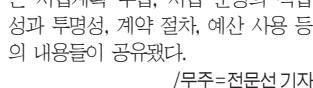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유교문화의 기본 정신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무분별한 디지털 문화 속에서 흐려진

인성과 공동체 의식을 되새기며 향교라는 전통 공간에서 우리 문화의 근간을 몸소 체득하는 유산 기반 인성교육의 장으로 의미를 더했다.

이번 행사는 향교가 단순한 문화유산이 아닌 가정과 학교, 지역을 연결하는 공동체의 거점으로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신동진 벼’ 재배 농가 종자 확보 당부

진안군은 2026년도 '신동진 벼' 정부 보급종 공급량이 올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품종을 계속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들에게 자가 재배 또는 농가 간 자율교환을 통한 종자 확보를 당부하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7년부터 신동진 벼를 대체할 새로운 보급종 공급을 추진하고 있어, 2026년도 신동진

보급종은 품종 전환기에 따른 공급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군은 안정적인 종자 수급을 위해 농가 스스로 종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자가체조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읍·면

농업인상담소 또는 진안군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 통

진안군, 인플루엔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진안군은 15일부터 2025-2026 절기 인플루엔자(독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2025~2026년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접종은 10월 15일부터 진안군의료원을 비롯한 8개 위탁의료기관에서 먼저 시작되며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는 10월 22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접종은 지난 9월 22일부터, 임신부 대상 접종은 9월 29일부터 시작됐으며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 접종도 10월 15일부터 접종이 시행된다. 65세 이상과 면역저하자인 위탁의료기관에서,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을 동시에 접종할 수 있다.

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능하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접종 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대상 확인 서류(산모수첩, 주민등록등본 등)를 지참해야 한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소방서, 119 구급상당

서비스로 의료 공백 해소

일상생활 중 갑작스러운 질병 발생이나 부상으로 인해 병원 방문 여부를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이때 국번 없이 119로 전화하여 의료 전문가의 실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전문 자격을 갖춘 상담요원들이 연중 무휴 24시간 근무하며, △응급처치 지도 △질병 증상 상담 △야간 병의원·약국 안내는 물론, 재외국민을 위한 응급의료상담 서비스(+82-44-320-0119)도 운영 중이다.

이용 방법은 119에 전화해 '응급상담을 원한다'고 말하면, 상담요원에게 연결되어 필요한 응급 정보나 대처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문자 안내도 가능하다. 음성 통화가 어려운 청각·언어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은 '전북119상담복'을 통해 편리하게 119 구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